

바보

바라보기·바로보기

전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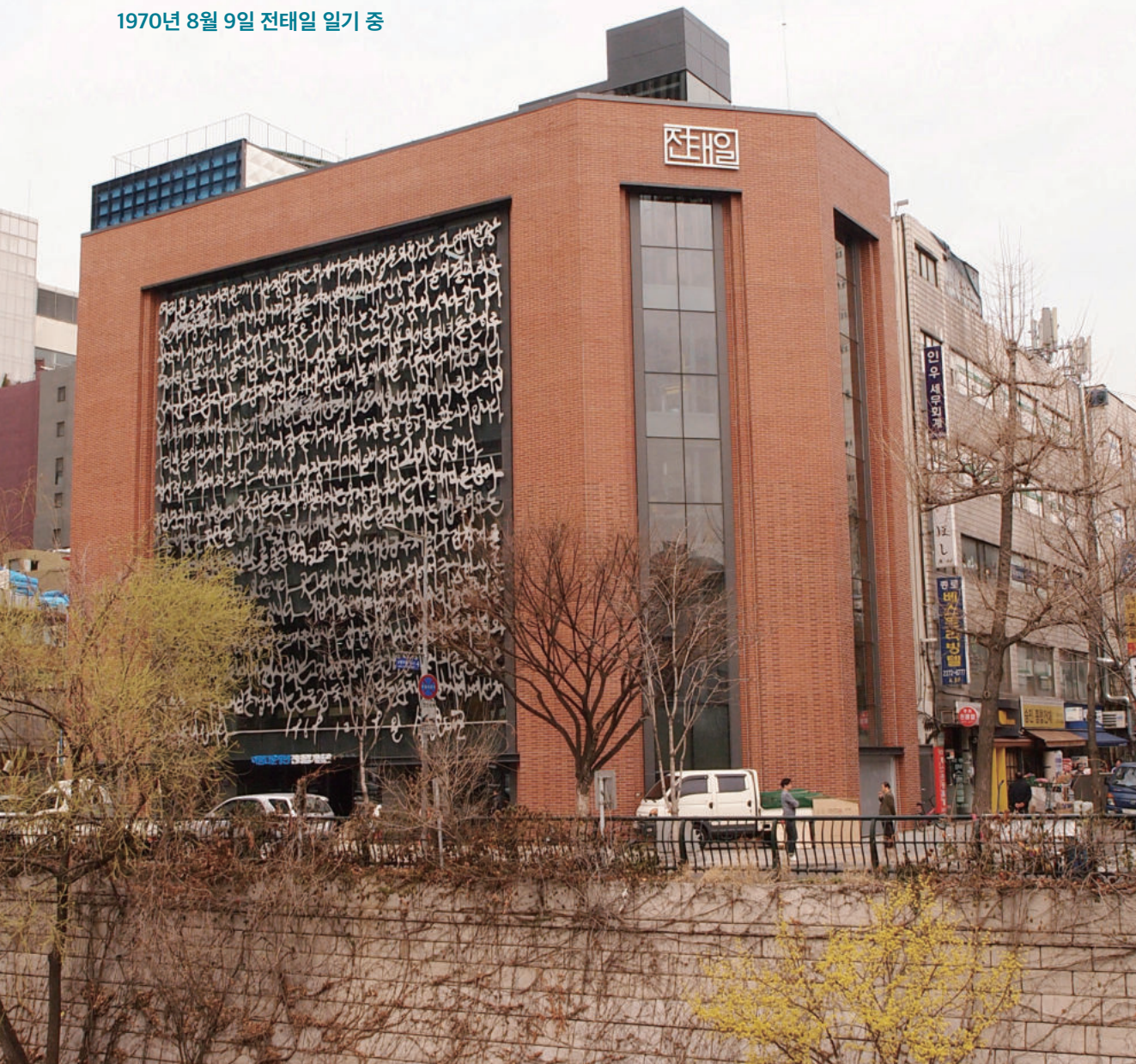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전태일기념관

“...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 어린 동심 곁으로
 ...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

1970년 8월 9일 전태일 일기 중



등장인물



태희, 태일 남매

패션 디자이너가
 꿈인 태희, 돈 많이 버는
 사장님이 꿈인 태일은
 평화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남매다.
 주말을 맞아 부모님과
 동대문패션타운에서
 쇼핑하고 청계천을
 산책 중이다.



전태일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22살의 재단사다.



♥ 04 전태일 + 사람

★ 14 전태일 + 꿈

◆ 24 전태일 + 약속

이 책은 전태일이 일했던 1960~70년대 평화시장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당시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던 일본식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 '시다'는 보조원을 의미하는 일본어 표현이지만 평화시장에서 사용한 '시다'는 하나의 독립된 직업이었어요. 이런 의미와 당시 시대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말로 바꾸지 않았으니 이해해주세요.

전태일 + 사랑

전태일

에휴,
오늘도 결국 버스비로
풀빵을 사버렸네.
오늘도 늦게 들어가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어쩌지?

태희

태일아, 이리 와봐.
너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
동상이야!

태일

전태일?
이 사람은 누구인데
이순신 장군처럼
동상이 세워진 걸까?



있어

아는지

하지

고 클까요?

전태일 +

전태일

버스비를 털어 풀빵을 샀거든.
어제도 일 끝나고 집까지
걸어갔더니 새벽이더라고.
어머니가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을 하실 게 죄송해서.

태일아, 이리 와봐.
너랑 이름이
똑같은
동생

전태일

어제 밤새 일하고,
오늘도 점심도 못 먹고
다락방에서 일하는
시다 동생들이 꾸벅꾸벅 졸길래.
풀빵이라도 먹으면 힘이 좀 날까 해서.
근데 너희도 배고프니?
풀빵 하나 줄까?

태일

형! 풀빵을 들고
왜 그렇게
고민해요?

태의

에에?
풀빵이 얼마나 한다고요?
돈도 없으면서
풀빵은 왜 사요?

태의

헤헤. 풀빵이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근데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밤새 일했는데 지금까지
또 일해요?

전태일 + 사랑

전태일 정신의 뿌리, 사랑

“나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감정에는 약한 편입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태일 수기 중



#시다

평화시장에서 '시다'로 일했던 전태일재단 이숙희 님의 증언에 따르면 '시다'는 하나의 독립된 전문적인 직업이었다고 해요. '보조 없이는 일해도 시다 없이는 일을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평화시장의 시다는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12~15세 소녀들이라 하루 30~50원밖에 안되는 돈을 받으며 16시간씩 힘든 노동을 해도 억울한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한 전태일

- 1948 대구에서 태어남
- 1954년 가족 모두 서울로 이사
- 1956~60년 남대문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잠깐씩 다님
- 1960~61년 13살 나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짐.
동생 태삼이와 삼발이 장사, 신문팔이,
구두닦이 시작.
- 1961년 첫 번째 가출. 1년 후 대구에 내려와 있던
가족과 만나 아버지 밑에서
재봉일을 배움
- 1963년 야간학교인 청옥고등공민학교 입학
- 1964년 어머니를 뒤따라 서울로 올라옴.
- 1965년 16살 나이로 평화시장 삼일사에 취직.
시다·미싱보조비정규직을 거쳐
정식 미싱사정규직이 됨
- 1966년 잠바 만드는 한미사에 재단보조로 다시 취직
- 1967년 바라던 재단사가 됨.
- 1969년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는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를 만들고 회장이 됨.
- 1970년 평화시장 노동환경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만들어 조사함. 정부와 방송국,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평화시장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려고 노력함.
바보회에서 '삼동친목회'로 발전.



태의

오빠는 청옥고등공민학교에 다녔던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래. 하지만 자기가 행복한 이 순간에도 머뭇거리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



태일

형은 성실하고 기술이 좋아 금방 월급 7천원을 받는 정식 미싱사가 됐어. 하지만 곧 월급 3천원 받는 재단보조로 다시 취직을 해. 스스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된거지. 왜냐하면 공장에서 가장 힘이 있는 재단사가 돼야 자기 여동생 나이의 어린 시다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야.

자세한 내용 10~11쪽



태의

첫 번째 설문조사는 실패했지만, 오빠와 함께 하는 삼동친목회 친구들이 있어 두 번째 설문조사는 성공할 수 있었어. 오빠가 원한 건 딱 세 가지였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자세한 내용 16~21쪽

#시다가 하는 일

평화시장 봉제공장은 재단사, 미싱사, 재단보조, 미싱보조, 시다(보조원)로 이뤄지는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장의 가장 막내인 시다는 다리미질과 실밥 뜯는 일, 실과 단추를 나르는 일부터 사업주나 미싱사, 재단사의 잔심부름까지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해야 했어요. 기술을 배우기도 전에 골병이 들어 떠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시다가 하는 일이 많고 중요하다보니 미싱사는 공장을 옮길 때 시다를 함께 데리고 다니기도 했어요.

전태일 + 사랑

어린 여공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

“원섭아! 아무리 부(富)한 환경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도 체력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아닌가?
나는 재단사로서 이 사람들과 눈만 뜨면 같이 지내거든.
정말 여간 고역이 아니야. 이제 겨우 열네 살이 된 어린아이가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그 힘에 겨운 작업량을 빨리 제 시간에
못해서 상관인 재봉사들에게 꾸중을 듣고, 점심시간이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먹는데 코끼리가 비스킷을
먹는 정도의 양밖에 안돼. 나는 이제 기술자가 되어
돈을 벌겠다든지, 대학교에 가겠다든지 하는
생각보다 날마다 눈앞에 부닥치는
동료 직공들의 딱한 사정을 어떻게
해결해주나 하는 생각으로
딱 미어지게 됐어.”

전태일 편지 중(1969년 9월 30일)

“
오다 파출소에서
자고 왔어요.
어머니가 나 집 나올 때
차비 30원을 주잖아요.
시다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낮이면 꾸벅꾸벅 졸고,
일은 해야 하는데.”

차비 30원

점심까지 졸졸 굶기에
보다 못해 그 돈으로
풀빵 30개를 사서
여섯 사람에게 나눠주었더니
한 시간 반쯤은 견디고 일해요.
그래서 집에 올 때 걸어왔더니
통금시간이 지나
파출소에 붙잡혔어요.”

풀빵 30개

버스값을 털어 풀빵을 사주던 시다들의 오빠

전태일은 어린 소녀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게 마음
아파 미싱사가 된 후 시다의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어려운 부탁이나 사정을 들어주었어요. 때때로 점심을
굶고 있는 시다들에게 본인의 버스값을 털어서 1원짜리
풀빵을 사주고 집까지 두세 시간을 걸어가기도 했어요.

어린 여공들을 위해 재단사가 되기로 결심

당시 공장장이 있는 아주 큰 공장을 제외하고 평화시장
봉제공장은 재단사가 직원의 입사와 해고, 임금까지
관리했어요. 전태일은 재단사가 돼 약한 직원 편에 서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공의 사정을 대변하는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장은 그를 해고했어요. 전태일은
자기 혼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태의
오빠는 재단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가족과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



전태일
내가 재단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시다 소녀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였어. 매일같이 내
눈앞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소녀들의 처지를 어떻게
모른척할 수 있겠니?



태의
그래서 사람들이 형을 바보라고
부르나봐. 눈 딱! 감고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 근데 왜 난
바보같은 형이 좋지?

전태일기념관 3층 >
상설전시관 >
전태일의 눈



전태일 + 사랑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모습

빈 곳에 스티커로 붙여주세요!



다락방의 하루

내 이름은 순이야. 하지만 이곳에선 이름 대신 '8번 시다'로 불러. 집안이 가난하지만 앓았다면 어리광을 부리며 중학교에 다녔을 14살이야. 내가 일하는 작업장은 8평 정도로 좁은 곳인데 모두 32명이 일해. 원래 높이 3미터 정도의 방이었는데 공중예다 칸막이를 뒤 2층으로 만든 곳이라 허리를 펴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나는 여기서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해. 재봉틀 소음 속에서 위험한 사다리를 타고 다락방을 오르내리며 공장 안의 크고 작은 온갖 심부름을 하는 게 내 일이야. 화장실 한 번 가려고 해도 주인아저씨와 미싱사 언니들의 눈치를 봐야 해. 물도 잘 못 마시고 일해. 환기시킬 창문도 없는 어두운 공장은 옷감에서 나오는 먼지로 뿌영고, 이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눈에는 눈곱이 가득하고 코를 풀면 시커먼 콧물이 나와.

전태일기념관 3층 >
상설전시관 >
봉제작업실 시민체험공간



태의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



태일
여기서 일하는 누나들 키가 다
나보다 작아. 그러고보니 형도
키가 작네?



전태일
하루 종일 햇빛도 못 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힘든
일만 하니 잘 클 수가 없지.
여기서 몇 년을 보내면 다들
여기저기에 골병이 생겨.
사업주는 치료는 못 해줄망정
아프다면 바로 자르니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



#전태일이 조사한 당시 평화시장

*봉제공장 노동자 임금

재단보조	3,000원
재단사	15,000원 ~ 30,000원
미싱사	7,000 ~ 25,000원
미싱(재단)보조	3,000원 ~ 15,000원
시다	1,500 ~ 3,000원

#당시 생활물가

커피 한 잔 50원 / 하루 하숙비 120원 / 라면 20원 /
짜장면 200원 / 시내버스 15원

*봉제공장: 재봉틀이나 손으로 바느질하여 의류나 완구 따위의
제품을 만드는 공장

화시장

전태일 + 꿈

전태일

형은 어렸을 때
너희같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어.

태일

부럽다.
나는 학교 가기 싫은데.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전태일

형도 잠깐 학교를 다니긴 했어.
다 해도 2년이 채 안되겠지만.
그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야.
형은 말야, 사람은 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나중에 내가 '근로기준법'을 혼자 공부했는데
한자가 너무 많아 어려웠어.
그때 대학생 친구가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

태희

근데 오빠는
원래 꿈이
뭐였어?

전태일 + 꿈

근로기준법에서 희망을 발견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전태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알게 된 전태일은 희망을 보았어요.

일하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그가 항상 바라고 꿈꾸던 세상이었어요. 전태일은 나라의 법으로 보장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바랐던 꿈같은
세상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었어.
그걸 모르고 기계처럼
시키는대로 일한
내가 참 바보 같았단다.

전태일기념관 3층 ▶
상설전시관 ▶
전태일의 실천



어린이 눈으로 본 알기 쉬운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하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래

제50조
(근로시간)

-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①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2~14살
누나들에게
밤 11시까지
일을 시킨
사장들은 다
법을 어긴 거야.

제69조
(미성년자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8조
(처벌)

근로감독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묵과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처벌하지
않는 것도
법을 어기는 거야.

전태일 + 꿈

바보들의 모임? 바보회가 뭐야?

“우리는 당당하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 권리가 있는데도
여태껏 기계 취급을 받으며 업주들에게 부당한 학대를 받았지만
바보처럼 짝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니 우리 재단사들의 모임은 바보들의 모임이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하며 그래야만
언젠가는 우리도 바보 신세를 면할 수 있다.”

전태일의 바보회 제안 내용 중



태일

형은 근로기준법 내용을 어떻게
잘 알게 되었어?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 어머니에게 부탁해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구했어.
법률용어와 한자가 수두룩한
근로기준법을 읽느라 사전을
옆에 끼고 한 자 한 자
찾아가며 읽었어.
매일 밤을 새울 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위해 바보회로 뭉치다

근로기준법을 알게 된 전태일은 낮엔 재단사를 찾아다니며 모임을 만들고 밤엔
근로기준법을 함께 공부했어요. 이런 노력으로 1969년 6월 말, 드디어 재단사 모임인
〈바보회〉가 만들어졌고 전태일은 회장직을 맡게 되었어요.

〈바보회〉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알려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되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바보회 회원들은 틈만 나면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근로기준법 내용을 얘기해줬어요. 그즈음 전태일은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어요. 이미 평화시장 사장들 사이에 ‘위험한 사람’으로 찍혀서 다른
공장에 취직하기도 힘들었어요.

전태일은 바보회 활동이 거의 중단되자 다시 재단사 친구들을 모아 삼동친목회를
만들었어요. 삼동친목회는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가를 다니며 126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평화시장의 노동환경을 조사해 노동부, 신문사, 방송국을 다니며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전태일기념관 3층 ▶
상설전시관 ▶
전태일의 실천

#삼동친목회

전태일을 주축으로 한 평화시장, 동화시장, 통일상
가 재단사들의 모임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햇불이 되겠다는 의미를 이름에 담았어요.



다른 재단사처럼 여공들의
어려움을 모른척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텐데...

힘들 길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 전태일 형과
안될 거라 미리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며 피한 사람들 중
누가 더 바보일까?

전태일 + 꿈

모두가 행복한 모범업체 태일피복

“저는 모범사업체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물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도 제품 계통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경제인에게 입증시키고 싶습니다. 사회의 여러 악조건 속에
무성의하게 방치된 어린 동심들을 하루 한시라도 빨리
구출하는 게 모범업체 설립 목적입니다.”

전태일 모범업체 설립 사업계획서 중(1970년 3월)



전태일기념관 3층 >
노동·희망 배움 터 >
전태일, 꿈꾸다

소비자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노동자에게는 인간적인 대우를

전태일과 재단사 친구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며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는 모범공장을 만들려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도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태일은 대학노트 30쪽에 걸쳐 사업방침(10개항),
필요한 각종 설비 비품의 숫자와 가격, 필요한 인원과
직공의 숫자와 인건비, 예상되는 한 달 수입과 지출의
내역과 총계, 생산할 제품의 종류와 그 판매방법,
소비시장 45개를 일일이 조사·기록한 ‘서울특별시
시장조사도’, 직공들의 교육·오락시설과 처우문제 등에
관한 세밀한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태의

오빠가 구상한 태일피복은 왜
만들지 못했어?



전태일

오빠가 가난해 사업자금을 구할
수 없었어. 투자를 받으려고
내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기도
했지. 대신 언제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조사를 많이
했어.



태일

형은 나이 어린 미싱사나
시다에게도 항상 존댓말을
쓰고, 꼭 '시다님'이라고 불렀대.

구인공고

저희 태일피복은 종업원 157명과 자본금 3천만원의
평화 시장 내에 있는 건실한 의류 제작 판매 업체로서
미싱사님과 시다분들 그리고 교사님을 모집합니다.

- 주 6일 근무(월 25일 근무)
- 하루 8시간 근무(주간반과 야간반 구분)
- 숙련 미싱사 월급 30,000원(타 회사는 10,000원)
- 시다 8,000원(타 회사는 1,000~1,500원)
- 교사 25,000원

근무 환경

- 월 2,000원의 교육비 지급
- 월 800원의 위생비 지급
- 공장 내 학교 운영(교사 5분 근무)
- 편리한 노동환경을 위한 비품 구비
(스팀장치, 조립식 탁구대, 도서관)

전태일 + 꿈

노동자들의 삶, 세상에 알리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변영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해가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씩의 고된 작업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 계통에서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쓴 편지(1969년 12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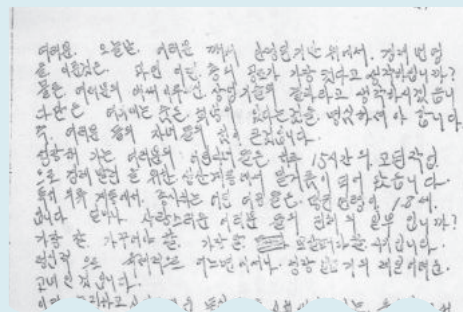
태일

평화시장의 현실을 알리려고 형은 대통령에게 편지도 쓰고, 근로감독관도 만나고 신문사도 찾아갔잖아. 형이 노력한 결과는 어땠어?



전태일

1970년 10월 7일 드디어 경향신문에 평화시장 노동환경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적이 마침내 일어난거지. 신문 300부를 사서 평화시장 동료와 어린 시달들에게 나눠줬어. '우리도 인간인가보다. 우리 이야기가 신문에 날 때도 있네.' 하며 다들 감동했어. 하지만 기사를 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근로감독관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근로감독관에게 보내는 편지



경향신문_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소녀 등 2만 여 명 혹사

전태일의
일기장

“전태일은 학교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어도 사물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명석함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과 행적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문장력을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명석함이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재야 운동가 장기표 <가장 인간적인 사람들의 가장 비범한 삶>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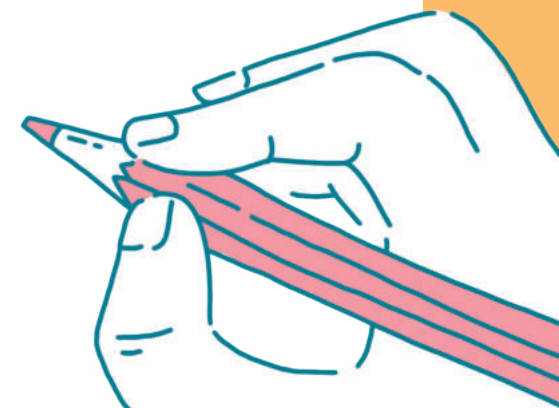
“맑은 가을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깊었으며, 그들과 그들로 옮겨다니면서 자라온 나는 한없는 행복감과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서로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껏 느꼈습니다. 내일이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나는 내가 살아 있는 인간임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진심으로 조물주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재봉일을 도와가면서 벽에 써붙여둔 영어단어를 열심히 외웠다. 뜨거운 다리미질을 하면서 영어단어를 외우다가 손끝이 다리미에 닿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4시 반까지 일을 계속하고 학교에 가면 그때가 하루 일과 중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다.”



전태일의 일기장

청옥고등공민학교 시절 전태일의 일기들



전태일 + 약속

전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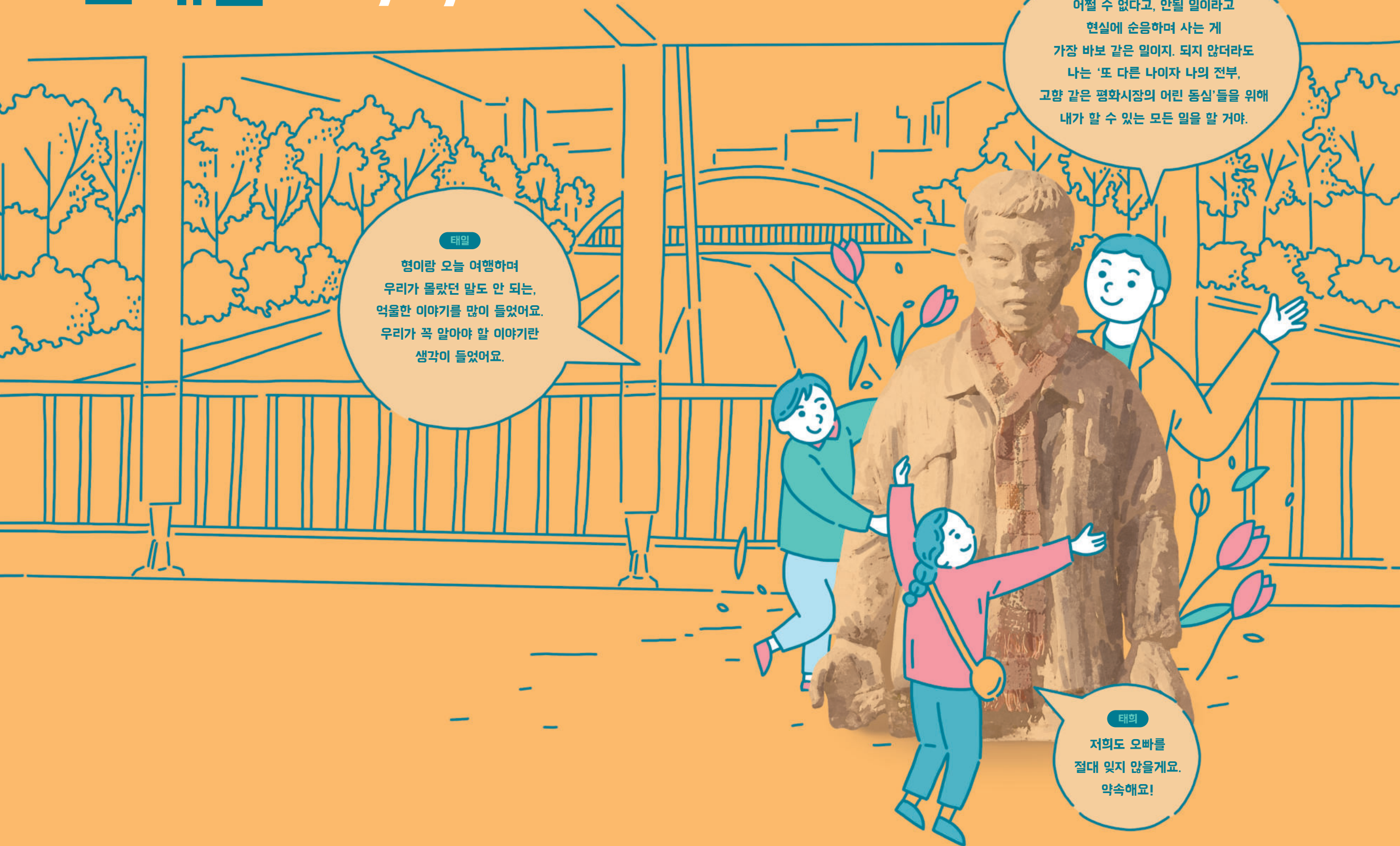
어쩔 수 없다고, 안될 일이라고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일이지. 되지 않더라도
나는 '또 다른 나이자 나의 전부,
고향 같은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거야.

태일

형이랑 오늘 여행하며
우리가 몰랐던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란
생각이 들었어요.

태희

저희도 오빠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전태일 + 약속

전태일의 약속을 함께하는 사람들

전태일

“모든 인간적인 문제를 외면하
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세.”

.....
노동자의 삶을 세상에 알리며
잠자는 양심을 두들기다.

이소선
어머니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기어코 내가 너의 뜻을 이루마!”

.....
헌 옷을 팔아 번 돈으로
가난한 노동운동을 돌보고,
노동자의 투쟁 현장엔 어김없이 달려나가
힘을 보탠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로 살다.

전태일기념관 3층 ▶
상설전시관 ▶
전태일의 꿈

조영래
변호사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전태일 선생을 통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
조영래 변호사는 이후 인권변호사로서
여성, 노동자를 위해 무료로 변론하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줬으며,
여러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전태일 평전〉을 써 전태일의 삶과 죽음,
그의 사상과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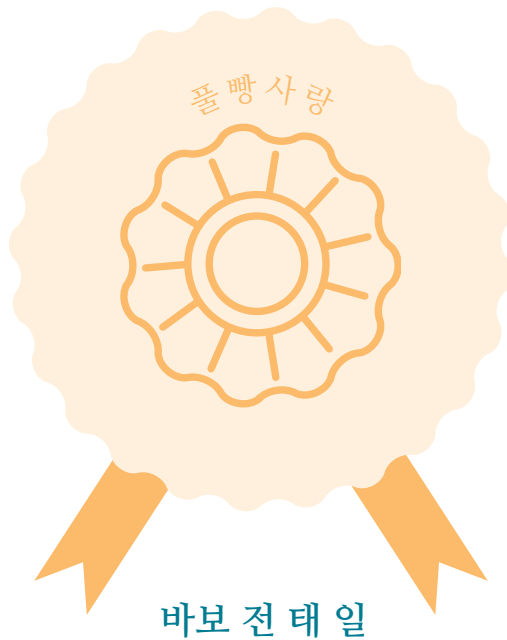
나, 너
우리들

“우리 모두가 전태일입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 모두가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
전태일은 우리를 항상 ‘또 다른 나’라고 불렀지.
전태일은 우리 마음에 작은 씨앗을 뿌렸다.
‘내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하고 있지.
그가 뿌린 작은 씨앗은 우리의 마음에서
희망의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
열매를 맺을거야.

풀 빵 상

당신은 전태일과
꿈을 주제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전태일의 삶을 함께 여행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본 당신에게
이 풀빵상을 드립니다.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우락이 있네 나를 지금
이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나려네 그 애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세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만의 꿈을 꿈꾸고 실현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양심의 목소리대로 행동할 때,
인간을 인간으로 사랑할 때,
모두의 꿈이 지켜질 수 있다고
전태일은 자신의 삶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동상

서울 을지로6가 전태일다리 위, 평화시장이 바라다보이는 곳에 전태일 동상이 서 있다. 1만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전태일 동상 앞에는 성금을 낸 시민들의 이름과 글귀가 동판에 새겨져 있다.